

이달의 초점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로 살펴본 우리나라 아동의 삶

아동의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 과제

|전진아|

영유아 양육·돌봄, 발달 현황과 향후 과제

|김지현|

초·중·고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영향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정|

아동학대·방임의 실태와 시사점

|이주연|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관적 웰빙 결과를 중심으로

|유민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관적 웰빙 결과를 중심으로¹⁾

Happiness Disparities among Korean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from the 2023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패널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캔트릴의 사다리²⁾로 측정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향상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이 개선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수준이 얼마나 향상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전반적인 행복도 향상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행복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복도의 국제 비교와 우리나라 아동의 다양한 배경에 따른 행복도 비교를 통해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배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행복 격차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행복 격차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행복 격차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 변화가 삶의 질과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 들어가며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수준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

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행복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염유식, 2010; 이봉주 외, 2013). 이에 발맞추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 행복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여 아

1) 이 글은 2020년 5월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한국 아동들의 행복 격차'의 후속 보고 형식으로 분석의 틀을 유지하고, 2025년의 함의에 대해 보완하였다.

동정책을 추진하였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15~2019)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최상위 목표로 하였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0~2024)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최상위 목표로 하였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대한 민국 정부는 10년에 걸쳐 아동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OECD 최하위를 탈피하고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2015; 관계부처 합동,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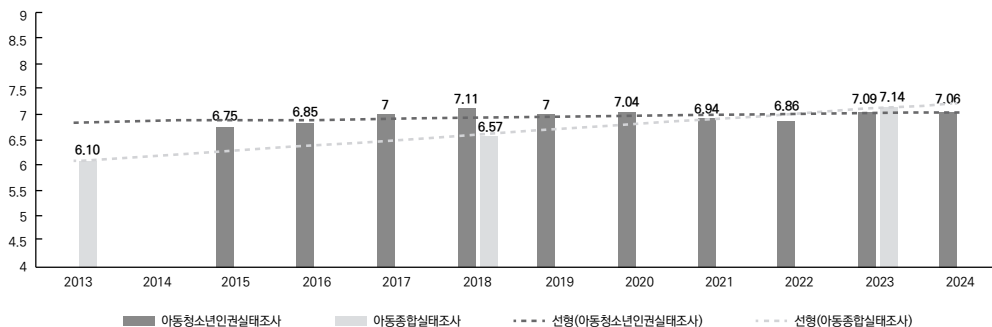
2023년 조사된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에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2023년 7.14점으로 점

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삶의 만족도를 중점 (mid-point)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즉 11점 척도 중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도 2013년 61.5%, 2018년 81.4%, 2023년 83.1%로 증가 하였다. 과거에 비해 아동 행복도가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이 개선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얼마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비슷한 시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같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부터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 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삶의 만족도 평균(11점 척도)이 2015년 6.75점, 2020년 7.04점, 2023년 7.09점으로 변화하였다. 2021년과 2022년 코로

[그림 1]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응답 평균 추이: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추이(2013~2024년)

(단위: 점)



출처: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유민상 외, 202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4-일반 01-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종합실태조사”, 김미숙 외, 201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19로 잠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다시 회복되어 2024년 7.06점을 기록하였다(유민상 외, 2024). 두 조사가 동시에 조사된 것은 2018년과 2023년이다. 2023년에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7.09점, 아동종합실태조사 7.14점으로 유사하였으나,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7.11점, 아동종합실태조사 6.57점으로 비교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학교 기반 조사라는 점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가구 방문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의 차이가 있다. 두 조사 모두 국가 승인 통계라는 점에서 어떤 조사의 결과가 현실에 더 부합하는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조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이 일어난 것인지, 어느 정도의 변동 속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두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모두 7점을 넘어섰다는 것,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집단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조사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와 소득 격차 간의 관계가 발견되며, 가구의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적인 행복 수준의 개선 경향에서도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 행복의 평균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다양한 집단 간의 행복 격차를 줄이는 것 역시 사회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행복의 격차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복도가 높은 국가들 역시 행복 불평등이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 행복

도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동 행복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Helliwell, et al., 2024, p. 18; OECD, 2024b, p. 5).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한 행복도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행복도 격차가 어떻게 변화되고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의 행복 격차란 사회경제적 격차와 같이 아동 행복도 혹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서의 개인 간,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가구소득, 학교급 등 다양한 배경에 따른 행복 격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포함된 행복도 관련 지표 변화들을 검토하고, 이 지표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집단 간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이 의미하는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분석 자료 및 척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 통계청 국가 승인 통계이다. 2008년에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출발하여 2013년부터 아동종합실태조사로 변경되었다.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 2023년에 5년 주기로 시행되었는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향후 3년 주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위탁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이상정 외, 2023).

[그림 2] 전반적 삶의 만족도(칸트릴의 사다리)의 설문 형태

(여기에) 사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0은 계단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삶의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10은 계단의 맨 꼭대기를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삶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당신은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	10	가장 좋은 삶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가장 나쁜 삶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p.761.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와 같이 주관적 웰빙(혹은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주관적 웰빙 지표에는 인지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측면의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였다. OECD의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 모델을 활용하였고, 유데미니아(Eudaimonia)²⁾를 측정하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함께 추가하였다(OECD, 2013).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

인 지표는 국제 조사에서 단일 문항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칸트릴의 사다리(Cantril's ladder) 척도이다. 가장 좋은 삶의 상태를 사다리의 꼭대기(10점)로, 가장 나쁜 삶의 상태를 사다리의 맨 밑(0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으로 WHO가 취학 연령 아동의 건강행동설문조사(HBSC: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에서 활용하는 문항이다(Currie et al., 2014).³⁾ 이 문항은 OECD 아동 웰빙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삶의 수준 혹은 삶의 만족도 척도로 분류된다.⁴⁾ 이 지표의 국제 비교 결과는 대중적으로 행복

2) 유데미니아(eudaimonia)란 좋은 삶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잘 살아가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OECD(2024)는 '삶의 목적, 목적 의식, 건강한 심리적 기능'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주관적 웰빙 측정에서는 삶의 의미, 가치, 역량, 자율성 등을 통해 측정되는데, 유데미니아의 측정은 아직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척도가 부족하지만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OECD는 2013년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2024년에 유데미니아를 보완한 측정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하기도 하였다(Kudrna, L. et al., 2024; Mahoney, 2023; OECD, 2013; OECD, 2024a). 'Eudaimonia'는 유데미니아, 유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등 다양하게 표기되기도 한다. 현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관적 웰빙 측정 모듈은 2013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향후 유데미니아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3) 아동건강행동조사(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에 관한 WHO 협력 다국가 연구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hbs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칸트릴 척도를 '삶의 수준'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종종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즉 삶의 만족도로 표현하였다.

도라 표현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에 대해 만족도를 묻는 문항도 있다. 이 조사에서는 Cummins & Lau(2005)가 개발한 학생용 개인 웰빙 척도(PWI-SC: Personal Well-being Index-School Children)에 따라 건강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이루어온 것에 대한 만족도(성취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관계 만족도), 안전 만족도, 동네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미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측정하였다.

독자들이 주관적 웰빙 점수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 결과에서는 응답 평균과 함께 6점 이상의 비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6점 이상 비율은 11점 척도의 중점(mid-point)보다 높이 응답한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파악할 때 활용되기도 한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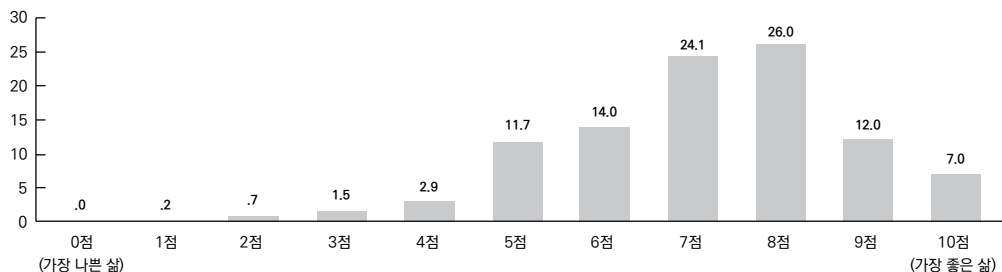
3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

가.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 국제 비교

2018년과 같이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사다리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아동은 설문지상에서 자신이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다고 느끼는지 응답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들의 응답 평균은 7.14점(표준편차 1.64)이었는데, 응답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 중 6점 이상이 83%를 차지할 만큼 ‘행복한 편’에 속한 아동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9점과 10점으로 매우 행복한 편에 속한 아동의 비율도 19%가량 나타나 과거에 비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도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OECD(2015)의 “How’s Life”에 제시된 회원국의 행복도 결과에 우리나라 아동의 결과를 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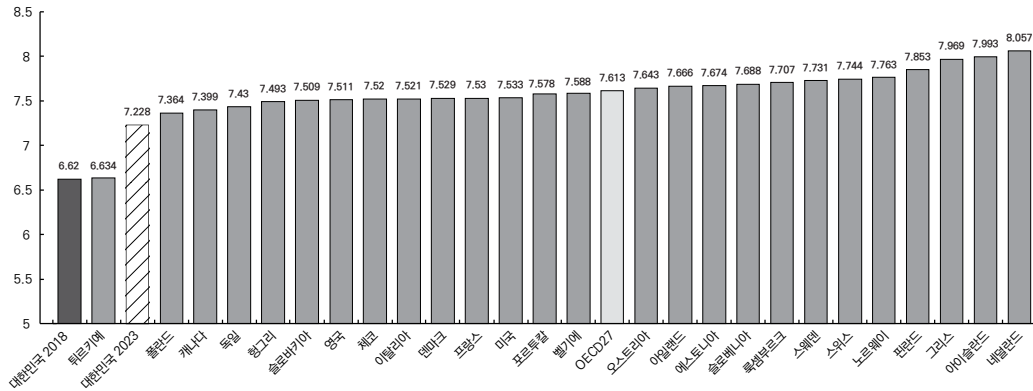
[그림 3] 전반적 삶의 만족도(칸트릴의 사다리)의 응답 결과 분포(2023년)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림 4] OECD 회원국 아동들의 행복도 국제 비교 결과(11, 13, 15세 평균)

(단위: 점)



주: OECD(2015)의 원출처는 Health and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tudy (HBSC) 2010 자료이며, 여기에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 2023년 원자료를 재가공하여 추가하였음.

출처: "How's Life?", OECD, 2015, p.174.

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결과는 WHO의 '취학 연령 아동 건강행동설문조사(HBSC)'에서 11세, 13세, 15세를 조사한 것인데, 우리 데이터를 동일하게 계산하면 2018년은 6.62점, 2023년은 7.11점이었다. 전체 국가 중 6점대에 머문 국가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유일했으나 2023년에 7.11점으로 상승하여 우리도 평균 7.0점 이상의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다만 국제 비교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개선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나.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

1) 일상에서의 행복(어제의 행복, 걱정,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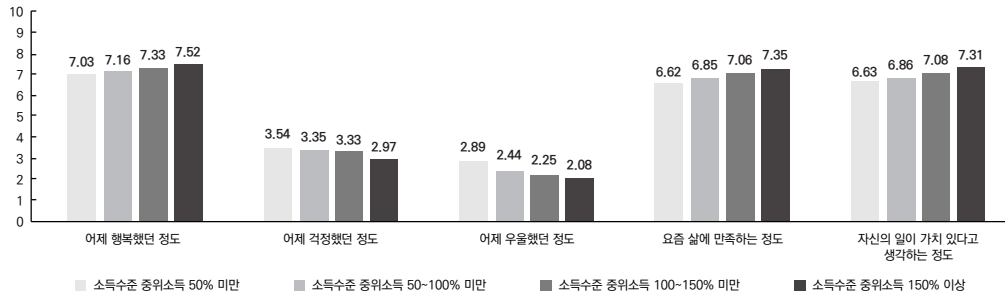
삶의 만족, 일의 가치)

OECD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다섯 가지 주관적 웰빙 측정 도구를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이들 문항은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내용은 어제의 행복 정도(평균 7.30점, 표준편차 1.76), 어제 걱정했던 정도(평균 3.26점, 표준편차 2.58), 어제 우울했던 정도(평균 2.33점, 2.29), 요즘 삶에 만족하는 정도(평균 7.03점, 표준편차 1.80),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평균 7.03점, 표준편차 1.70)였다.

이 결과를 소득수준별(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50~100% 미만, 100~150% 미만, 150% 이상)로 나누어 보면 다섯 가지 문항 모두에서 소득수준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일상에서의 행복 문항의 가구소득 배경에 따른 차이(2023년)

(단위: 점)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 긍정적 문항(어제 행복했던 정도, 요즘 삶에 만족하는 정도,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부정적 문항(어제 걱정했던 정도, 어제 우물렀던 정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아졌으나 소득계층 간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측면, 즉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2)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학생용 개인 웰빙 척도(PWI-SC)’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삶에서 중요한 영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영역들은 건강, 학교 생활, 성취, 관계, 안전, 동네, 생활수준, 미래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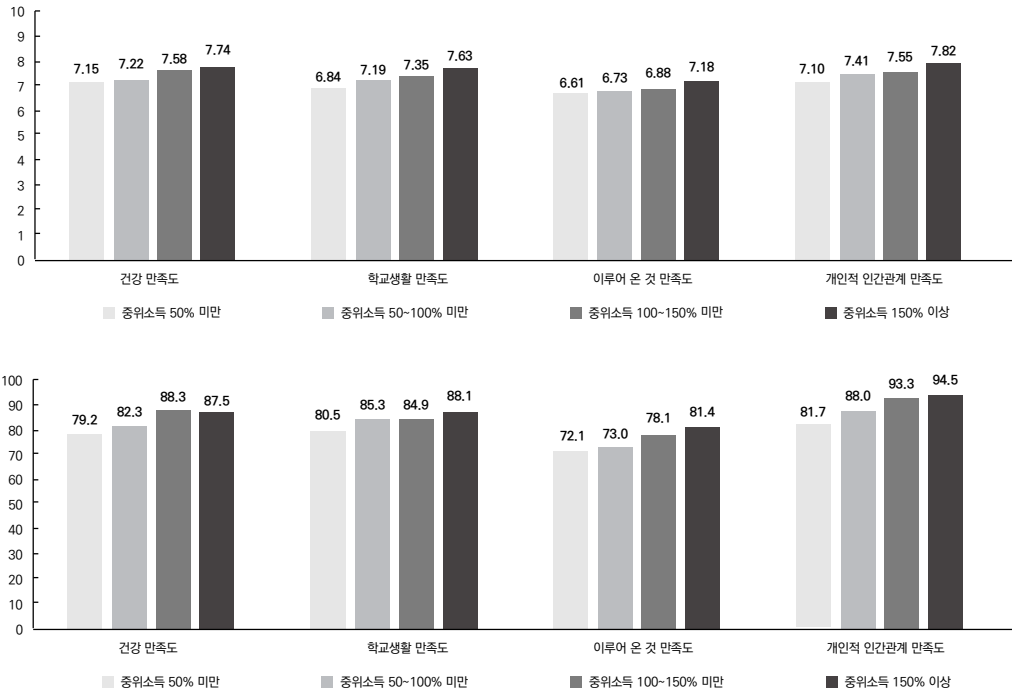
성 등이었는데, 0점에서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먼저 건강, 학교생활, 이루어온 것(성취),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한 네 가지 만족도 모두 소득계층별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개별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건강 만족도 평균점수 7.47점, 표준편차 1.65,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점수 7.33점, 표준편차 1.69, 이루어온 것 만족도 평균점수 6.89점, 표준편차 1.62,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평균점수 7.54점, 표준편차 1.41 등이었다. 네 가지 변수는 소득계층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교생활 만족도와 이루어온 것에 대한 만족도 모두 중위소득 50% 미만 그룹에서는 6점대 점수가 나타났다. 이루어온 것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 동네, 생활수준, 미래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소득계층별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개별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안전 만족도 평균점

[그림 6]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1(소득집단별 평균 차이, 6점 이상 응답 비율 차이, 2023년)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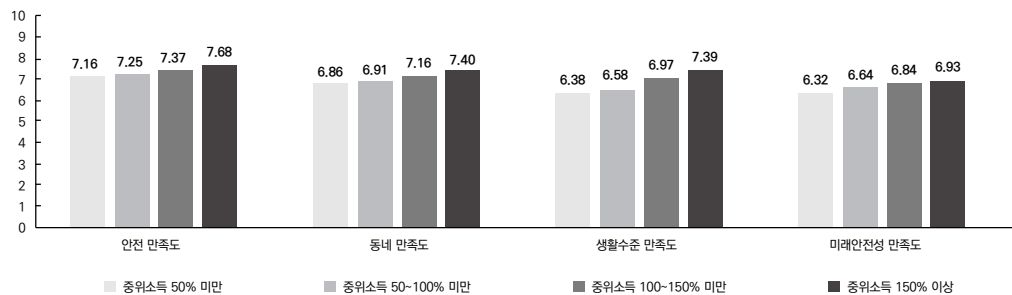


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평균(점), 6점 이상 응답 비율(%).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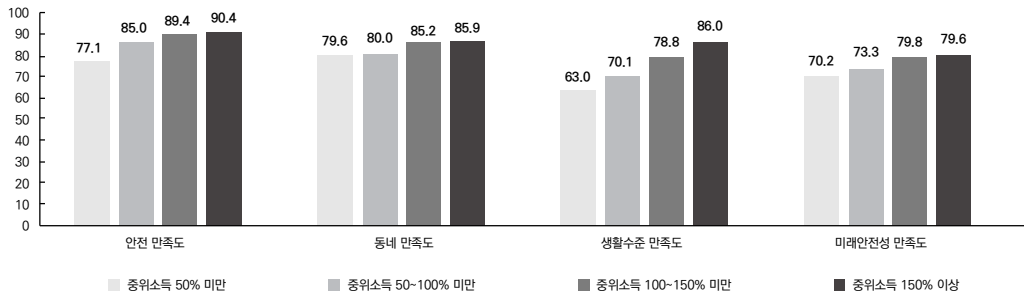
[그림 7]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2(소득집단별 평균 차이, 6점 이상 응답 비율 차이, 2023년)

(단위: 점, %)



[그림 7] 계속

(단위: 점, %)



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평균(점), 6점 이상 응답 비율(%).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수 7.40점, 표준편차 1.51, 동네 만족도 평균점수 7.12점, 표준편차 1.55, 생활수준 만족도 평균점수 6.91점, 표준편차 1.69, 미래안정성 만족도 평균점수 6.75점, 표준편차 1.67 등이었다. 이 중 미래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계층에서 6점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많은 아동이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데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3)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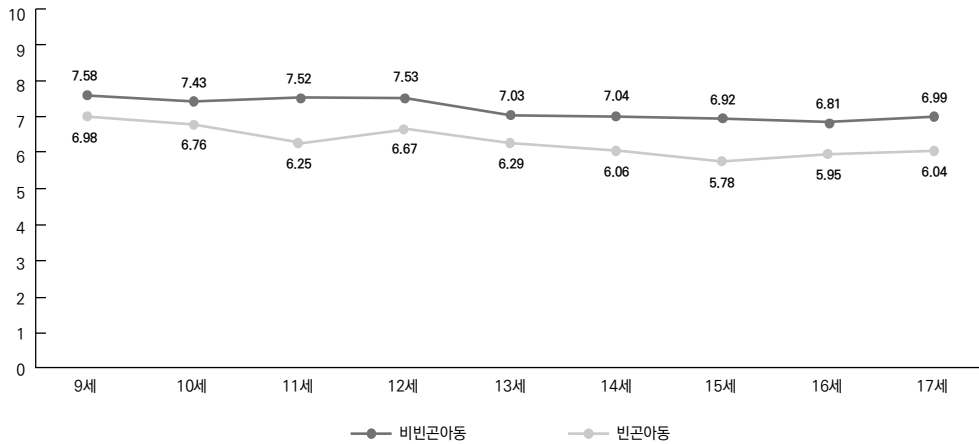
아동·청소년기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Casas & González-Carrasco, 2019).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연령 증가에 따른 행복도의 감소 추세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유지되는 것이다. 비록 이 조사는 횡단조사이기 때문에 종단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각 연령과 소득계층(일반아동, 공공부조 수급아동)을 조사하여 평균을 비교하면 격차가 유지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조사는 1세 집단별 비교를 하는 것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급별로 삶에서 중요한 영역별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간의 영역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생활수준 만족도와 미래안정성 만족도에서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 이루어 온 것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미래안정성 만족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그림 8]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 차이(평균점수, 2023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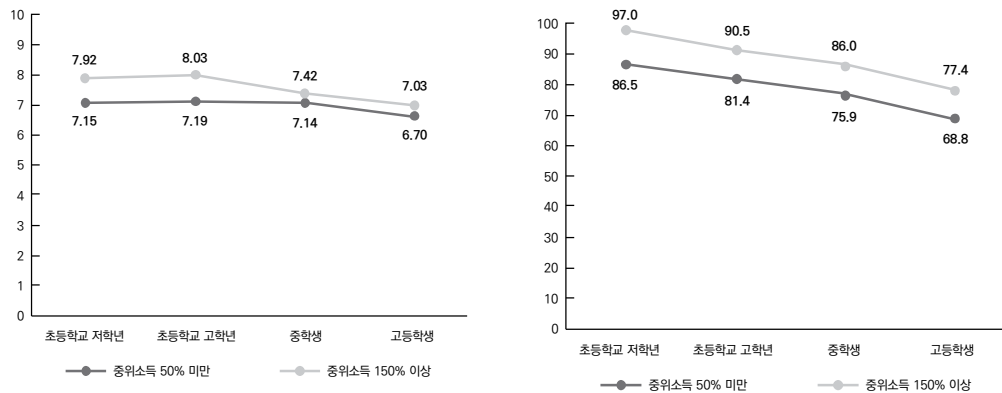


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중 6점 이상 응답 비율을 계산하여 도식화하였음.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림 9]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 차이(소득집단별 평균 차이, 6점 이상 응답 비율 차이, 2023년)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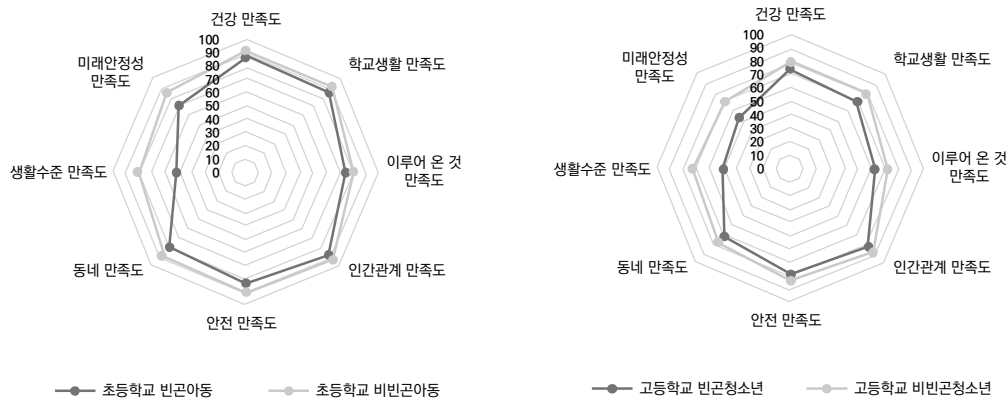


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중 6점 이상 응답 비율을 계산하여 도식화하였음.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림 10]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영역별 만족도 차이(학교급*빈곤/비빈곤, 2023년)

(단위: %)



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중 6점 이상 응답 비율을 계산하여 도식화하였음.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이는 초등학생까지는 학교생활이나 이루어 온 것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 만족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안정성 만족도는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계층 간 차이는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인기에 대한 전망을 더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은 아동 삶의 만족도가 단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이루어 온 것), 그리고 미래(미래안정성)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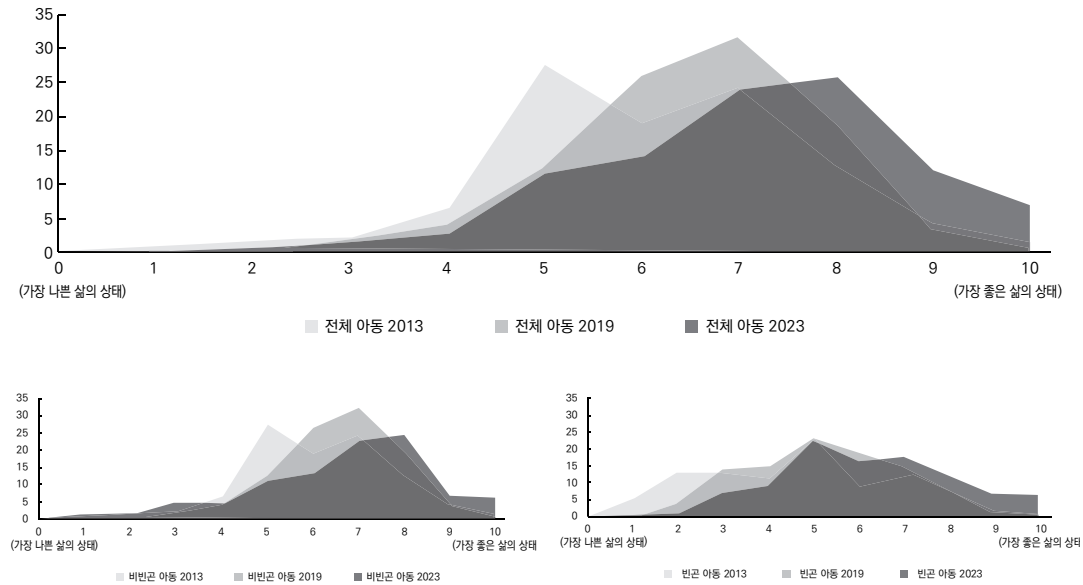
3) 가구소득에 따른 행복 격차 변화: 2013, 2018, 2023년 비교

여기서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응답 차이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2013년 삶의 만족도를 보면 응답이 5점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2018년 7점으로 응답이 변화하였고, 2023년에는 8점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조사에서 전체 응답의 최빈값이 점차 변화한 것이다.

이를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빈곤아동의 추이는 전체 추이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빈곤아동의 추이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빈곤아동은 2013년, 2018년, 2023년 모두 5

[그림 11]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 삶의 만족도 응답 분포 차이(빈곤/비빈곤 아동, 2013~2023년)

(단위: %)



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중 6점 이상 응답 비율을 계산하여 도식화하였음.

출처: “아동종합실태조사”, 김미숙 외, 201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류정희 외, 201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각의 보고서 원자료를 이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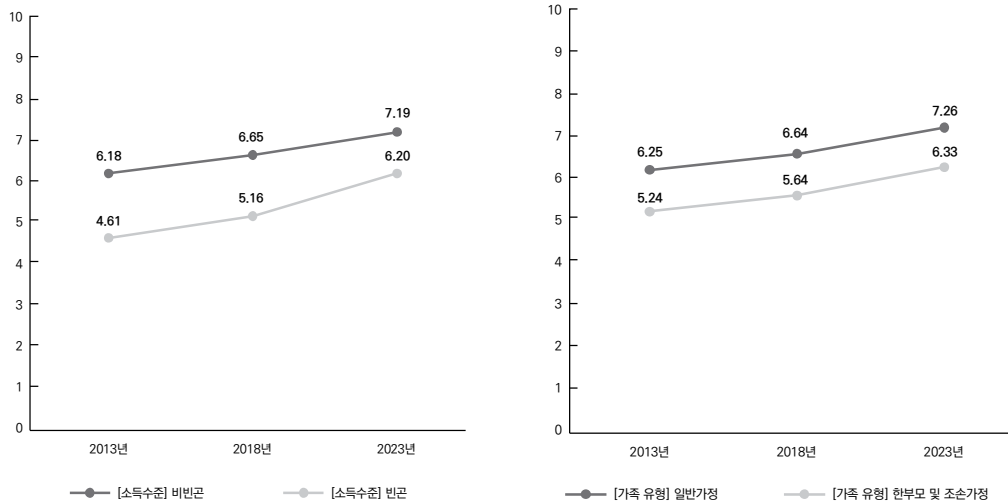
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다. 다만 2013년에는 가장 나쁜 상태라 할 수 있는 0~3점에 응답한 아동이 적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5점을 중심으로 대칭 모양을 이루었다. 2023년에는 중점을 중심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삶의 만족도 응답 추이 변화는 비빈곤아동뿐만 아니라 빈곤아동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아동 응답의 최빈값은 여전히 5점에 머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정도를 보이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집단별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

다. 비빈곤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 6.18점, 2018년 6.65점, 2023년 7.19점으로 증가하였고, 빈곤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 4.61점, 2018년 5.16점, 2023년 6.20점으로 증가하였다.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1점 가까운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의 삶의 만족도 역시 2013년 5.24점, 2018년 5.64점, 2023년 6.33점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 가정의 삶의 만족도와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 속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 12] 가정 배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 추이 변화(2013~2023년)

(단위: 점)



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평균점수.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다. 새로운 격차 발생의 위험 요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지금까지는 소득계층과 학교급 등으로 인한 격차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환경과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OECD, 2021; OECD, 2024b, p. 86). 따라서 사회경제적 계층과 상호교차하는 새로운 환경과 위험 요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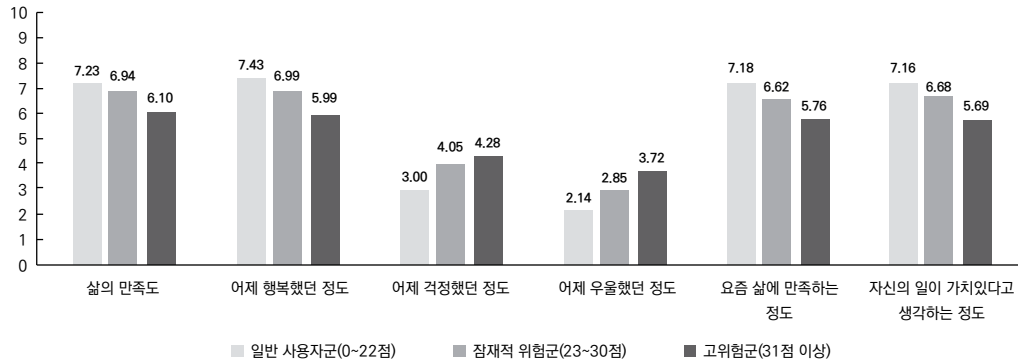
아동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졌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영향

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기회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계층이 만들어 내는 행복도의 차이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따른 행복 정도 차이를 보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고위험군에서 모든 주관적 웰빙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났다(그림 13).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회와 역량 증진,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함께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사회관계망 변화도 행복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행

[그림 13]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따른 행복 정도 차이(2023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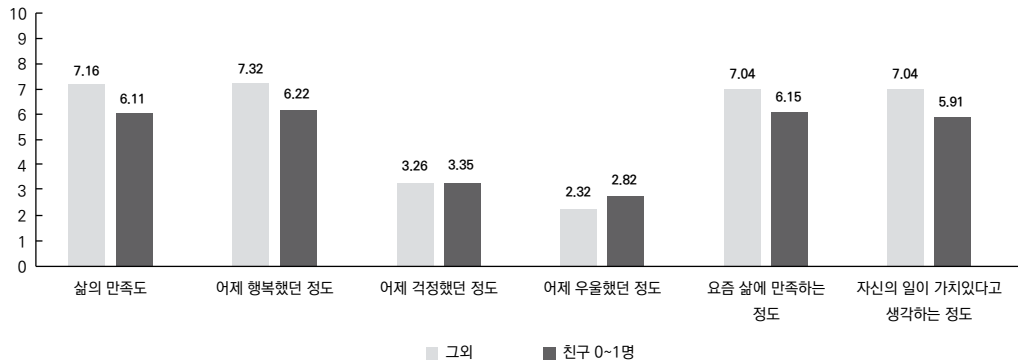


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중 6점 이상 응답 비율을 계산하여 도식화하였음.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림 14]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행복 정도 차이(2023년)

(단위: 점)



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평균점수.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복에 중요한 좋은 관계와 사회적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친구가 0~1명이라고 응답한 아

동과 그 이외 아동의 주관적 웰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삶의 만족도, 어제 행복했던 정도, 요즘 삶에 만족하는 정도,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14). 사회적 관계망은 그 자체로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재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향후 아동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4 나가며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가구 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아동 간 행복도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 학업 부담을 줄이고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전반적인 아동 삶의 질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한 결과 보편적으로 아동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혜택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계층 간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평균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아동 행복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행복도의 향상 속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유지되는 현상은 특정 집단의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 구조적인 영향력

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계층에 따라 아동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자원과 환경이 달리 작용하며, 이것은 행복 격차를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정리하였다.

첫째, 아동 행복에 있어 ‘평균’을 넘어 ‘격차 해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아동 행복에 두고 정책을 펼쳐 왔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OECD 평균점수로의 행복도 증진을 목표로 하였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OECD 최하위 수준 탈피와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 7.0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현재 아동 행복도는 과거 정책이 목표로 했던 수준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 비빈곤아동과 빈곤아동 모두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복도가 변화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다른 경제 선진국들만큼 국제적 수준으로 아동의 행복도를 높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의 초점을 단순히 평균점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행복 격차 해소’로 명확히 전환하고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회적 웰빙은 평균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웰빙 수준의 분포와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달성할 수 있다(OECD, 2024b). 아동 행복 정책의 목표를 ‘평균 증진’에서

‘격차 해소’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목표 수정을 넘어 정책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 행복 측정 및 모니터링을 더 정례화하고, 취약 아동 등 다양한 아동의 행복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행복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기존에는 5년에 한 번, 앞으로는 3년에 한 번 아동의 행복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아동의 삶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삶의 질 측정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행복 측정도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 간 격차뿐만 아니라 행복의 격차를 만들어 내는 집단이 더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인구 집단의 행복 격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빈곤 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 아동, 시설 보호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취약 아동·청소년 집단의 행복 수준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단순히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격차를 유발하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격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가구 소득, 부모의 학력 및 직업, 거주지역(도시·농촌, 지역 내 격차 등), 가족 형태, 아동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장애 유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행복 측정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는 어떤 배경을 가진 아동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를 밝혀 내어 격차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 개입 지점을 식별하며,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핵심 토대가 될 수 있다.

셋째, 행복 격차 해소를 위한 행복의 부정적 요인 제거와 긍정적 요인 강화의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행복은 단순히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고 증진되지 않는다. 행복해질 수 있는 요인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아동 행복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경쟁 문화 완화, 높은 학업 스트레스 경감,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 해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 중심의 교육 과정 개편,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 개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행 학습 및 사교육 부담 완화, 학교 및 사회 전반의 차별 금지 노력 강화 등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아동이 충분한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가족·친구·교사와의 좋은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아동정책 최상위 목표는 앞으

로도 변함없이 '아동 행복'이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을 넘어 '행복 격차 해소'를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책의 초점을 '평균'에서 '격차'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다양한 취약 집단을 포함한 정밀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리고 행복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긍정적 요인을 강화하는 전략의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아동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아동 행복 증진으로 설정하여 아동의 행복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간 것과 같이 앞으로 10년간은 아동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행복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관계부처 합동. (2020).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염유식. (2010). **제2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유민상. (2020). 한국 아동들의 행복 격차. **보건복지포럼**, 283, pp. 58-70.
-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연구보고 23-일반 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 유설희. (2024).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4-일반 01-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연정. (2013). **한국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상정, 이주연, 전진아, 김수진, 임성은, 신영규, 류정희, 하태정, 권영지, 김시아, 김지현, 유민상.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asas, F., & González-Carrasco, M. (2019). Subjective well-being decreasing with age: New research on children over 8. *Child development*, 90(2), 375-394.
- Cummins, R. A., & Lau, A. (2005). *Manual: Personal wellbeing index - School children* (3rd edn) [Resource document].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Deakin University.
- Currie, C., Inchley, J., Molcho, M., Lenzi, M., Veselska, Z., & Wild, F. (2014).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protocol: background, methodology and mandatory items for the 2013/14 survey*.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4). *World Happiness Report 2024*.

-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 Kudrna, L., Arachchige, T. N., Alidu, L., Dolan, P., & Mahoney, J. (2024). *Measuring affectiv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Updated evidence to inform national data collections*.
- Mahoney, J. (2023). Subjective well-being measurement: Current practice and new frontiers.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No. 17*.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4e180f51-en>.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how_life-2015-en.
- OECD. (2021).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Revised typology of risk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302*.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b8f222e-en>.
- OECD. (2024a).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across OECD countries. *OECD Policy Insights on Well-being, Inclusion and Equal Opportunity, No. 16*.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f5199579-en>.
- OECD. (2024b). *How's Life? 2024: Well-being an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0ba854a-en>.

Happiness Disparities among Korean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from the 2023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Yoo, Min S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Korean children's happiness levels have risen on average over the past 10 years. These life satisfaction scores, measured on a Cantril Ladder scale, rose from 6.10 in 2013 to 6.57 in 2018 and to 7.14 in 2023, which may be attributed to improve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children. When results from other studies are put into perspective, however, such outcomes do not amount to sufficient evidence for ascertaining the extent to which Korean children's happiness has improved over the period. What is clear, though, is that, as disparities persist in life satisfaction scores—despite their overall gains—across children from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efforts must continue, aimed at improving policy interventions. For effective policymaking, it is also crucial to continually monitor how post-COVID-19 changes in daily life patterns affect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